

해외의약뉴스

엽산보충제는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.

개요

임신 중에 엽산보충제를 복용하면 저체중아가 태어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.

키워드

엽산, 저체중아, 임신

임신에 앞서 엽산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저체중아(SGA) 출산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BJOG(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: 산부인과 국제 저널)에 2014년 11월 26일자로 게재되었다.

108,525명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, 84.9%가 임신 중 엽산을 복용했다. 그들 중에 엽산보충제 섭취 시작 기간을 기록한 39,416명 중 25.5%는 수정 전 엽산 복용을 시작했다고 기록했다.

연구진들은 수정 후 엽산 복용은 저체중아 출산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, 수정 전 엽산 복용은 저체중아 출산율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. 덧붙여서, 연구진들은 임신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엽산을 섭취하지 않은 임산부의 저체중아 출산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.

따라서, 연구진들은 “수정 전 엽산의 보충은 다른 변수들이 고정된 경우,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.”는 결론을 내렸다.

저명한 공동연구자인 Khaled Ismail은 “저체중아 아기에 관련한 연구 성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 전과 임신 후 첫 3개월간 엽산을 복용하는 임산부들의 증가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.”라고 공식 언론에서 연구 결과를 밝혔다. “이 새로운 전략은 산모와 아기들 모두의 생명을 필수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다.”

▣ 원문정보 ▣

<http://www.pharmacytimes.com/condition-resources/vitamins-supplements/Folic-Acid-Supplements-Reduce-Low-Birth-Weight-Baby-Risk>